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

제정 2026. 1. 1.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은 교육·학습, 연구·개발, 행정 등 대학의 전 영역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윤리적·사회적 책임의 재정립을 요구한다.

AI는 자료 분석, 실험 설계, 글쓰기, 논문 작성 등 교육과 학문 활동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연구의 생산성과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판적 사고력 저하, 창의적 학술활동 위축, 학문적 부정행위 및 평가의 공정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AI의 편익과 유용성을 이해하고, 이를 책임 있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AI 기술의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활용을 장려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아우르는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대학교 소속 교원, 학생, 연구원, 기술 개발자 및 행정 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AI를 교육·학습, 연구·개발, 행정을 위해 활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율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AI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수용·수정·공유·인용·가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서울대학교 구성원이 주도하거나 책임을 지는 외부 협력·공동연구·위탁개발 등의 활동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구성원이 교육·학습, 연구·개발, 행정 등에서 바람직하게 AI를 활용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명시한다. AI 활용의 일률적인 금지 또는 제약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합리적 판단과 창의적 접근, 명료한 소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안내한다. AI 활용은 서울대 학문공동체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창의적인 학문 활동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각 단과대학 내규, 관련 법령 및 외부 기관의 지침과 정합성을 유지하며,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이 가이드라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책임 있게 AI를 활용하고,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문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제1장 활용 가이드라인

1. AI 도구 선택 및 사용

(1) 목적의 명확화

AI 사용 전에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AI는 단순히 작업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돕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떤 부분에 AI의 도움을 받을지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2) 기술 특성 이해

AI는 기술에 따라 각기 다른 성능, 기능, 데이터 학습 방식,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성과 한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AI 기술을 선택한다.

(3) 적절한 입력 사용

AI 모델은 프롬프트 등 입력값의 품질에 따라 결과물의 완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 등의 작성 방법을 익히고, 필요에 따라 여러 번의 수정을 통해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4)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므로, 이를 활용하려는 구성원은 최신 동향과 한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변화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AI 활용과 창의성의 조화

(1) AI를 창의성의 도구로 활용

AI는 단순한 작업 자동화를 넘어, 아이디어 발산, 다양한 관점 탐색, 복잡한 문제의 해법 모색 등 창의적인 활동을 보조하는 데 유용하다. AI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2) 비판적 사고 유지

AI가 제공하는 정보나 해결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AI에 과의존하여 자신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AI의 결과물에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검증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3) 능동적 학습 자세

AI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한다.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AI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동향과 윤리적·사회적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윤리 가이드라인

1. 공통

(1) 투명한 활용 공개 및 명시

서울대학교가 교육·학습, 연구·개발, 행정 관련 AI 활용의 혜택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 간 및 외부와의 관계에서 신뢰성 기반의 활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학교 구성원은 신뢰성 구축과 유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학습, 연구·개발, 행정 과정에서의 AI 활용 사실을 공유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사실 및 출처 확인과 검토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결과물은 오인을 유발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의 교육·학습 연구·개발, 행정 활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 포함되거나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배포하기 전에 필요한 사실·출처 확인,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3) 저작권,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안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은 AI를 활용함에 있어 저작권, 프라이버시, 정보보안 관련 법령과 관련 학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생성형 AI의 활용 과정에서 입력하는 자료 또는 프롬프트 등 입력값에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편향성 교정과 윤리적 사용

AI 도구는 사회에 내재 되어 있는 편견과 차별 등을 발현시키거나 이를 강화 또는 확산시킬 수 있다.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은 이와 같은 AI 활용에 수반될 수 있는 리스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등 AI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노력을 해야 한다.

(5) 다른 규정·지침과의 연계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이 교육·학습, 연구·개발, 행정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 외에도 AI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윤리규정 또는 지침이 연계되거나 독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은 본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이러한 여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책임소재의 인지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은 교육·학습, 연구·개발, 행정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산출한 결과물이 있을 경우, 그 결과물의 제출 및 활용에 따른 모든 책임(진실성 여부 또는 저작권 침해 여부 포함)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7) 기록 보관

특히 연구 성과를 게재하는 학술 매체에서는 AI 활용에 관한 다양한 의무와 검증 절차를 부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 수행 및 출판, 나아가 과제 제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또는 과제 작성 과정 및 결과물 작성(특히 초안 및 이후 수정 과정 포함)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육/학습

(1) 교육 및 학습 과정에서의 AI 활용

수업에 대한 교수자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존중하며, 각 교수는 교과목 특성에 맞게 AI 도구 활용의 허용 및 금지 범위, 사용 시 보고 방식을 결정한다. AI 도구는 효과적인 학습을 보조하고 촉진할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교수자] AI 활용 정책 제시와 학생과의 소통

교수자는 강의계획서 등에서 AI 도구 활용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수강생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이를 안내한다.

(3) [교수자] 학생들의 AI 오용 방지

교수자는 AI 탐지 도구의 불완전성을 이해하고, 수업 정책 등을 통해 AI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학생들이 AI를 부당하게 활용하여 과제나 시험에서 이익을 얻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교수자] AI 의존 평가 지양

교수자는 학생 평가를 함에 있어 AI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지양한다.

(5) [학생] 수업 정책 준수

학생은 강의계획서 등에 명시된 교수자의 수업 정책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정해진 방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6) [학생] 허용된 범위 내 활용과 책임

학생은 교수자의 정책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7) [학생] 학습 윤리 위반 시 불이익 인식

학생은 교수자가 금지한 방식의 AI 활용이 드러나는 경우, 학습 윤리 위반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한다.

(8) [대학] AI 정책 수립을 위한 교수자 지원

교수자가 강의계획서 등에 포함할 수 있는 AI 활용 허용·금지 범위 및 보고 방식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대학은 필요한 자료와 지침을 제공한다.

(9) [대학] 대안적 교육·평가 방식 지원

대학은 AI 탐지 도구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적인 교육 및 평가 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10) [대학] 의견수렴 및 안정적인 정착 노력

대학은 교육 현장에서 AI 활용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율된 정책을 통하여) AI가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연구/개발

(1) AI의 사회적 영향 인식

AI를 연구에 이용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해당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I 시스템이 차별, 편향, 안전 문제를 초래하지 않고, 인권이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결과물의 재검토 및 교차 검증

AI 결과물과 인용 자료는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구자가 재검토하고, 기존 문헌·실험·전문가 의견과 교차 검증한다.

(3) 산출물의 활용 및 명시

AI가 생성한 산출물을 가공 없이 그대로 연구 결과물에 넣는 것은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용되는 연구진실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AI 산출물을 연구에 활용할 경우에는 학문적 정직성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¹⁾

(4) 연구데이터 및 기밀정보 보호

연구자는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데이터, 과제 관련 정보, 연구 수행자의 개인정보 등 연구와 직결된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I 도구에 연구데이터나 기밀정보를 불필요하게 입력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연구 보안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5) 재현성 및 기록 관리

AI 활용 과정(프롬프트, 버전, 모델명, 활용 범위 등)은 가능한 한 기록·보존하여 연구의 재현성을 확보한다.

1) 예로, 오로지 외국어 표현의 교정 또는 문법 검토를 위해서만 AI를 활용할 경우, 전통적인 외국어 교정 서비스의 이용과 마찬가지로, 연구비 지원 기관, 소속 기관, 학회·학술지의 정책 등에 위배 되지 않는 이상, 그 활용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6) AI 의존 경계 및 창조적, 비판적 사고 유지

AI는 연구 보조 도구일 뿐, 연구자의 학문적 판단과 비판적 사고를 대체할 수 없다. 핵심적인 연구 설계와 해석은 인간 연구자가 주도해야 한다.

(7) 관련 기관 및 학술지 가이드라인 준수

연구비 지원 기관, 소속 기관, 학회·학술지의 최신 정책과 윤리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반드시 이를 준수한다.

(8) 기술 개발 과정의 투명한 관리

AI 시스템의 연구와 개발에 참여하는 이는 개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9) 개발된 기술의 오용 방지 및 안전한 사용 조건 제시

AI 시스템의 연구와 개발에 참여하는 이는 개발한 AI 기술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용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4. 행정

(1) 적극적인 AI 활용

AI는 문서 처리, 데이터 관리, 정책 지원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2)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

행정업무에서 AI를 활용할 때는 단순한 편의성에 그치지 않고, 공정성과 책임을 고려하여 위 공통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AI의 윤리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3) 학교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의 보호

외부 서버 기반 AI를 활용할 경우, 학교 정보자산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